

나의 수행법

김기현 (상)



온몸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급해지며, 금방이라도 내가 어떻게 잘못될 것처럼 두려워했다.

2003년 사법연수원 1년차 여름휴가를 맞이해 '내면세계로의 여행'을 떠났다. 조계사 무로법륜상담을 마치고 곧장 서울 안국선원에서 개설한 간화선 초보자반에 들어가 9일간 수행을 했다.

의심의 불길, 절망

그해 7월, 안국선원에서 난 "종교는 진리로 가기 위한 방편이지 목적이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고급종교가 있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문을 들었다. 그리고 스님 법문 말미에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굽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때는 그것이 '이랬고' 화두인지도 몰랐다. 궁금했다. 무슨 의미일까? 화두 참구 첫째 날, 스님은 특

역경의 눈물 그리고 편안함

스님 법문 후 좌복을 두껍게 깔고 반가부좌를 해 앉으니 항상 움직이는 습에 뱀 몸뚱이가 적음을 못하고 자꾸만 잠에 떨어졌다. 앉아 있어도 이놈의 몸뚱이는 온통 번뇌 망상에 빠져 날뛰고 중간 중간 스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지만 역시 잠만 쏟아졌다.

화두 참구 이틀째, 스님은 어제 수행 과정상의 잘못과 오늘날의

온몸으로 답을 찾으라니 눈앞이 캄캄 아무리 머릴 굴려도 감이 안잡혀 답답

같은 화두를 다시 주었다. 그리고 그 화두를 온몸으로 찾으라고 했다. 누군가가 "제 손이 움직이게 합시다"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손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 죽은 송장도 손이 있는데, 그 손은 왜 움직이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손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손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답을 해보라"며 다그쳤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머리가 없다 생각하고 온 몸으로 화두 공부를 하라. 생각이 끊어진 곳에서 생각하라"는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머리로만 답을 찾아왔는데, 온몸으로 답을 찾으라니 속수무책이었다. 그럼 "말이 끊어진 곳에서 생각이 이어진다"는데 어떻게 하면 말인가?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찾는다 말인가?

수행 방법에 대해 법문해줬다. "누가 검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가?" 라는 질문은 이미 내가 던졌다. 여러분은 답만 찾아라. 질문만을 반복하고 있을 셈인가? 질문은 있고 오직 답만을 찾아라. 지금 답을 몰라 답답함이 의심이고 바로 답이다. 오직 그 답답한 마음만을 믿고 나가라"라고 했다. "화두를 들고 답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은 화두를 어떻게 든단 말인가? 온몸으로 답을 찾는다 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검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누군가?"라는 문제만 떠오르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감을 잡지 못했다. 정말 답답했다. 스님은 "공부가 되고 있는 중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화두란 알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갑갑함이고, 그 갑갑함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화두를 제대로 들고 있는 거다"라고 했다. (계속) ■ 변호사

박영재 법사에게 듣는 무문관 공안수행법



선도회 박영재 지도법사 (서강대 교수).

무문관 48칙 투과하면 어떤 공안도 막힘없어

'화두 하나만을 타파하면, 1천7백 공안에도 막힘이 없는가?'

간화선 재가수행자모임 선도회(禪道會)를 16년간 지도해온 박영재 법사(50·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는 '그렇다'고 말했다. 단, 전제조건을 달았다. 무문관(無門關) 공안 48칙을 하나하나 타파할 것과 스승과의 지속적인 화두점검이었다.

그럼, '하나가 곧 모두가 된다(一即多)'는 선의 원리와 무문관 48가지 공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박 법사는 '체(體)와 용(用)'의 원리로 설명했다. 즉 무문관 1칙 조주 무자든 관계없이 공안 하나를 타파하면, 다

른 공안들을 통해 투과한 그 화두의 활용 능력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무문관 48칙은 처음에 타파한 화두를 일일이 점검하는 '공안 예제(例題)'가 된다. 또한 수행자들에게 다양한 공안들을 제시, 근기에 맞는 공안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박 법사는 무문관 48칙이 '사다리' 선 수행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월 22일 오후 5시, 선도회 겨울철아침정진이 열린 서강대 성당 211호 기도실에서 박 법사를 만나, 무문관 수행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02)705-8453. www.seondo.org

▲무문관(無門關) 화두공부법은 무엇인가.

-무문관 수행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간화선 수행전통을 그대로 살려 오늘날 현실에 맞게 활용한 수행법이다. <무문관>은 중국 송대의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9) 선사가 1700여 칙(頌)의 공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48개의 공안을 가려 화두 참구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여기에는 당시대를 함께 호흡했던 선배 선사들의 핵심 공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48칙 공안의 본칙(本則)과 평창(評唱), 송(頌) 등의 원문을 읽고 해석하며 알송달송한 공안들을 하나하나 타파하는 것이 무문관 화두공부법이다. 때문에 무문관은 '간화선 수행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선전통에서는 단계별 공안 공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무문관은 화두의 순차적 타파를 강조한다. 왜 그런가.

조주의 제1칙이 47칙 이끌어

사람마다 인연 달는 화두 따로 있다

-무문관 수행은 사다리를 밟아가는 공부라 아니다. 수행해 체득한 바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다. 무문혜개 선사가 지은 무문관은 자기 힘으로 공안을 타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간화선 지침서다. 그래서 사다리 공안이라고 할 수 없다.

일제시대 경허·만공 선사의 일대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허 선사는 만공 선사가 화두공부에 막혀 있을 때, 다른 화두를 주고 점검했다. 수행자에게는 인연 달는 화두가 있다는 의미다.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화두를 바꿔줘야 한다. 무문관 공안집은 수행자의 수기(隨機), 즉 기분에 따라서 수행자들을 인도했다. 수행자의 기분에 맞는 공안을 3-4개 쥘 점검하는 것이다. 경허 선사가 만공 선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무문관 48칙을 다 통과하면, 다른 공안에도 막힘이 없게 되는가.

-무문관 48칙을 투과하면, 다른 공안도 한 꼬치에 꿰 수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무문관 수행법의 핵심은 선의 체(體)와 용(用)의 측면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지혜의 체득과 활용이다. 무문관 48칙은 선의 활용에 대한 능력을 갖췄는지 다른 관점에서 점검하면, 다른 공안에도 막힘이 없게 된다. 48칙 공안집 <무문관>은 유기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제1칙 조주의 무자공안(趙州狗子)이 나머지 47칙을 이끈다. 조주 무자공안을 제대로 체득을 했는지 47개 공안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무문관의 1칙 조주의 무자공안이 전형적인 모범문제라면, 나머지 47개는 그것을 제대로 잘 체득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풀어보는 예제 문제라는 설명이다.



선도회원들이 1월 22-23일 서울 서강대 성당 기도실에서 열린 겨울방학정진에서 참석을 하고 있다.

▲그럼 무문관 수행법이 초심자에게 단계적인 화두공부의 길을 제시하는 셈인데, 일상 속에서 무문관 화두공부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기 맑은 일에 100% 뛰어드는 것이 바로 수행과 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무문관 수행에 앞서 '수식관(數息觀)'을 해야 한다. 수를 세면서 호흡하는 무문관의 예비수행법이다. 온갖 번뇌망상이 사다리는 현대인들이 화두를 들려고 해도 들 수가 없다. 잠깐 들리다가도 온갖 잡념이 출몰한다. 그럴 때, 수를 세면서 호흡에 집중해 그 망상을 제어해야 한다. '수'라는 강력한 망상 하나만 일으키는 것이다. 수식관을 화두를 철저히 붙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첫 걸음이다. 수식관을 통해 붙드는 힘, 즉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절치(察

則)이다. 선사들의 서로 주고받는 선문답을 다 빼고, 화두에만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간소화된 화두다. 화두 붙드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다. 마치 태권도 선수의 체력단련이 수식관이라면, 절치는 연습게임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48칙 무문관 수행에 들어가게 된다.

▲선도회 무문관 수행법의 특징은?

- '입실점검'이 선도회 무문관 수행의 핵심이다. 입실점검은 그공안의 화두공부 과정과 그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다. 또 흐트러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된다. 이 같은 무문관의 입실지도 전통은 이미 중국 남송대의 득참(獨參)과 총참(總參)에 있다. 득참은 혼자서 조실 스님 방에 들어가 자유롭게 점검을 받는 것이고, 총참은 선원의 수행자 전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임해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조실 스님의 주장자에서, 발길질에 채이면서 초긴장 상태에서

수 세며 호흡→화두 붙들기→본격 수행

일주일마다 한번 입실점검

화두를 들게 된다. 그 상태에서 입실점검을 하면 공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입실점검이 궁극적으로 화두공부의 지름길이다.

▲선도회는 입실지도도를 통한 공부점검을 강조한다. 왜 그런가.

-비유하면, '박사학위와 인가'로 들 수 있다. 지도교수가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줄 때의 시점이 언제냐면, 혼자서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이제는 제자를 받아서 제자에게 학위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때, 박사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인가라는 것은 석가세존처럼 대가를 이뤘을 때 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셋길로 빠지지 않고 혼자서 철저히 지속적인 선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인가를 해 주는 것이다. 때문에 입실지도 점검이 중요하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영가 천도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뒷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중합병환 의사의 어머니가 후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를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까지 간성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화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랑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대중경복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최재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두암팔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올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졌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오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과일의 왕 두리안 Sale!

두개 6.5KG 이상 55,000원
판박스 13KG 이상 100,000원
후식으로 망고스탈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수분과 질이 높고 맛도 뛰어나며, 생선도 함께 먹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이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여 되었습니다.

우물리지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예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불구하고 불자님의 경례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유년 새해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시는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회장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